

제 1 편

군정의 개관

제2장

2021 군정 성과 및 2022 군정 추진계획

40	제1절 2021 군정 성과
49	제2절 2022 군정 추진계획

1. 총괄

민선 7기 출범 후 ‘사람이 희망인 울주’를 비전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울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를 유치하고 울주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인구 30만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다.

특히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유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숙원 사업으로 발로 뛰는 행정이란 결실로 내년에 세무서가 신설되면 납세 편의와 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정책은 올해 「울주군정 BEST 7」 1위로 선정되며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23만 군민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든든한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인구 30만 시대를 위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발굴과 도시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사업과 비대면 용기축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문화관광축제는 코로나 시대 새로운 문화관광의 비전을 선보이며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울주 스마트팜 조성,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조성과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 받는 군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군민의 건강, 일상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유례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극복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했던 연초에 검사를 원하는 군민에게 신속 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식당,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울산 최초로 안심 콜서비스 비용도 지원하였다.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추진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올해도 계속되어 전년도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울주군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영주권자 1,400명을 포함하여 보편적 복지의 내실을 다졌다. 22만 3천 명에게 지급된 1인당 10만 원의 긴급 군민지원금 223억 3천만 원은 코로나로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불씨가 되었고,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여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군민들도 줄을 이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 200억 원을 지원하고 울산 최초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3,378개소에 701백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울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재난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방역 대책, 자원 동원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인구감소 위기대응 분야 지역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인구정책 분야 최우수상과 일자리 분야 우수상 동시 수상, 2021년도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코로나 대응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상 수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 좋은 정책대회 최우수상 수상, 자치분권 지방 정부협의회 주관 자치분권 어워드 우수기관 선정, 2021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평가 경영 자원 부문 1위·종합 3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등 24개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고의 도농복합도시임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었다.



2. 역점시책별 주요 성과

가.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튼튼한 복지
교육도시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하여 결혼에서 출산과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4년 동안 연 최대 4백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413가구를 지원하여 신혼부부들이 타지역에서 울주로 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청년들이 울주군에서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비용 및 작은 결혼식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개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으로 결혼부터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사업은 울주군정 BEST7 3위에 선정되며 군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과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복 지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와 찾아가는 현장 프로그램 운영, 24시간 무인 대출 반납 및 예약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운영, 디지털 북 체험 공간 조성 등 전국 군 단위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통해 군민의 행복한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부족한 의료기관, 넓은 면적, 교통 불편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검진 버스 운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방역 대책인 ‘코로나 블루 언택트 심리지원’과 언택트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 꾸러미 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비대면·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치매에서 안심하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였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도이용권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단 운영으로 3,020개의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2,018명에게 제공하는 등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 기반의 토대를 다졌다.

저소득층의 희망 일자리 편의점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신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남부청소년 수련관 준공으로 권역별 청소년복지시설 확충 완료, 온산을 행정복지타운 착공, 노후·협소한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중부 종합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틈새 없는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균형발전 도시

주변 도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며,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두서지역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은 ‘22년 생활 SOC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급격한 인구 유출지역인 두동·두서 지역의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는 청량읍 율리·율현지구는 군청 주변 행정복합타운 및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울산형 농촌 융복합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시, 울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울산 KTX 역세권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과 울산도시공사, 한화도시개발이 합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을 보강한 스마트 자족 신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구역 면적 153만㎡ 중 약 28%인 42만㎡를 연구개발(R&D), 미래차, 생명공학(BT), 에너지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주거시설 1만 2,000세대도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에서 수립한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에는 울산 경제자유구역과 울주 강소특구 등이 들어서는 KTX 역세권 서부권을 제2 도심으로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지난해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 채택되어 언양과 온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역특화거리 조성, 창업플랫폼 조성, 상가 거리 개선, 마을문화창작 거점 공간 조성 등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범서 굴화리, 서사·척과리, 선바위 지구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온양 마을 정비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군 전역에 걸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료 기반이 취약한 남울주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2040 울주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도시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과 지속 가능한 울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다. 협력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경제활력 도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 최초로 소상공인 3,378명에게 카드수수료 701백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 자금 560건 18,259백만 원을 신규 용자 지원하였다.

울주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13개 사에 수출입 다변화를 지원하고, 10개사에 디지털 마케팅 지원 및 신남방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해외무역관 지사화 연계사업,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등 울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기 위하여 주력하였고,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금과 중소기업 148개소에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무료 노무 상담 및 집중 컨설팅도 제공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작년 10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한 에너지 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박람회 참가, 인터넷 광고 시행, 입지 여건을 반영한 분양 변경 공고 등 각종 분양 지원정책을 통해 22개사 분양률 32%를 달성하였으며, 국내 첫 원전해체 연구소 유치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동남권 지역 에너지·원전해체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중소기업체(제조업) 70개 사에 15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밖에도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434명에 대한 맞춤형 산업 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 공공일자리 사업 등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생면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 농업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유리온실과 데이터센터, 컨테이너 팜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6차산업 인증사업체 9개소 지원, 스마트팜 보급 확산 지원 16개소, e-커머스 플랫폼 사업 지원 2개소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섰다.

두서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사업 지속 추진, 축산농가 스마트장비(ICT 융복합기술 적용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사료자동배합·급여기 등) 보급으로 스마트축산 환경조성 등 미래지향적 축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자동화 시스템 상시 운영과 이동통제초소 운영, 축산차량 GPS 구축 등 선제적 가축전염병 대응으로 재난성 가축전염병(구제역·AI, ASF) 청정지역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으며 연중 안정적인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축산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20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울주군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울주군·중·남구 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제공하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공급처로 농업인 소득 증대하였다.

범서·삼남·청량·온양·온산·울산원예농협 6개소에 로컬푸드 생산·판매 기반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 신장세를 유지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로 지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이바지했다. 내년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농산물 소비시장의 확대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라. 일상이 즐거운 체류형 문화 ·관광도시

지난해 11월 출범한 울주문화재단이 본격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기반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초하여 생활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문화예술회관 및 서울주문화센터, 울주생활문화센터, 오영수문학관 등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경쟁력을 증진하였다.

코로나시대 울주문화배달, 마을공감 놀이터 등 세대별 다양한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였다.

코로나시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소규모 관광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사업은 65,848명이 도전하여, 32,732명이 완등하는 등 울주군이 전국적인 산악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 언택트 트렌드에 발맞춘 ‘주말엔 울주! 주민참여형 관광이벤트’ 운영과 관광택시, 마모투어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생 간절곶 해안을 거점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즐겨 찾는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언양읍성 종합 정비계획 재수립을 통한 언양읍성의 체계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잔디마당 문화공간 조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관아 추정지 정밀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광 자원화를 통한 역사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 기념행사, 반구대암각화와 디지털 아트의 만남, 암각화를 활용한 소원판 만들기 등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보고 즐기고 느끼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일상 속 역사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보존 계승하는 데 앞장섰다.

올해 울주 대표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축제로 개최하여 코로나시대 언택트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온라인 상영과 별빛야영장 영화 상영, 헤드셋 극장 등 자연 친화적 콘텐츠를 도입해 관람객뿐만 아니라 영화제 기간 중 소음 문제 해소를 건의한 마을주민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웅기축제에 48만 명이 참여하여 랜선 개막식, VR·AR 활용한 온라인 웅기테마파크, 웅기TV 홈쇼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웅기 축제를 계기로 웅기 문화에 대한 상시적인 관심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마. 군민행복 맞춤형 안전환경 도시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 추가 구축, 통합 비상 발령시스템 고도화, 대형 양수기 40대 확보 및 활용, 지진 조기 정보시스템 구축, 선바위 물놀이 안전홍보시스템 설치 등으로 재난 현장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울주 조성에 노력했다.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범죄취약지역 21개소에 방범용 CCTV 64대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통합, 협업체계를 구현하여 범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500개 설치 지원, 빈집 정비사업(4개소), 상북 향산, 웅촌 하대 등 4개 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안전환경도시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폭염에 대비한 도로 노면 살수차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및 무더위 생수 냉장고 운영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정책들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무더위 생수 냉장고 운영은 「울주군정 BEST 7」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지난해 구축한 악취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악취 모니터링 및 자동시료채취 장치 운영으로 악취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였고, 실시간 악취측정 센서 및 CCTV 감시로 악취배출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주택, 창고 등 538동을 철거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수행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서 농어촌도로 304호(하양선) 확포장공사, 삼남 교동 도시계획도로(소2-95호, 소2-123호) 준공을 비롯하여 도심지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147면과 천상 한울공원 지하 주차장 60면을 준공 하였고, 울주사랑 택시 및 마실버스 운영, 스마트시티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다.

올해 처음 운영한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은 6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진, 교통, 심폐소생술, 소화기 체험 등 안전사고 유형별 찾아가는 맞춤형 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에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바. 소통하고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혁신 도시

군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선호 군수가 직접 민원 해결사로 나선 ‘열린 군수실’은 올해도 지속 운영해 167건의 신청 민원을 상담·해결했다.

찾아가는 소통 행정의 목적으로 추진한 ‘현장소통! 마을소통! 「우리마을로 초대합니다」와 「랜선으로 떠나는 울주군 행복소통열차」, 「걸어서 울주 속으로」 등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과의 소통방식을 다변화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듣고 더 나은 울주를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내실화하여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32건, 96억 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했다.

‘군민권익위원회’ 운영으로 군민의 고충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고, 미래 울주를 위한 정책 제안 군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안제도에서 건의된 333건 중 19건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군민의 의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였다.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울주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군민과 소통하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썼다.

공식 유튜브 채널 ‘울쭈TV’는 군정 소식을 유쾌하고 신선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년 대비 구독자 수 240% 이상 증가하는 등 군민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제 2 절 | 2022 군정추진계획

1. 추진방향

민선 7기 군정 비전인 「사람이 희망인 울주」와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을 일관된 자세로 추진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희망 울주 SUCCESS」를 슬로건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울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대 역점시책에 모든 군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역 점 시 책

- ①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도시
- ②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균형발전도시
- ③ 일상 속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
- ④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 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녹색도시
- ⑥ 소통과 공감으로 스마트 군정 실현

2. 역점시책별 추진계획

첫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도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여 전 생애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 지원금을 울산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며, 출산축하용품 지원방식을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로 개선할 계획이다. 출산장려금과 축하용품 지급,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영유아 임신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출산지원에도 힘쓴다.

학대 피해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학대 피해 가정의 갑작스런 양육공백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도 지원한다. 전국 최초 시행한 청소년 성장지원금의 신청요건인 거주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소득 창출과 노인 빈곤 예방에 기여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독거 어르신에게 스마트 돌봄 인형을 지원하여 어르신 안부 확인과 생활 관리를 돕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 조호 물품을 지원한다. 거동 불편과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과 온산을 종합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한편, 울주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운영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보육 실현에 앞장선다. 장애인 복지관 별관과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을 이전신축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 등 함께 누리는 틈새 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교육 기회 평등 실현과 평생학습 확산을 위하여 울주형 서로나눔혁신교육을 운영하고 은퇴기 장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 등 은빛 세대 디지털 생활교육도 지원한다. 다함께 누리는 다양한 보편적 교육 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인터넷 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운영으로 생활 속 독서문화공간을 형성한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디지털 북 체험, 천상도서관 24시간 무인 대출반납 및 예약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책 읽는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친화 독서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고 천상도서관 자료실 확장 및 강의동을 신축하여 행복한 미래, 꿈과 희망이 있는 지식복지 울주를 실현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균형발전도시

울주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두동 이전지구·두서 인보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울주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2개소)하며, 민간도시개발(산업단지)사업의 지속적 관리강화 등 전략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남창 마을 정비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 균형발전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청사 계 도로망 구축과 범서, 온양지역 신규도로 개설, 남창천~대운산 수목원 일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KTX 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주요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충사업 등으로 도로·교통 기반시설을 개선 및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

셋째,
일상 속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

웅기마을 명소화 사업 거점시설 건립과 배내숲 문화마당 조성, 간절곶 일원 오션 힐가든과 선라이즈 컬처센터 건립,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사람과 문화를 잇는 울주, 문화예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제7회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개최, 친환경 테마파크, 울산웅기축제 개최와 소망을 담은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울주문화재단을 운영하여 문화기관의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을 높여 간절곶 공공미술 프로젝트, 울주문화배달 등 30여 개의 문화사업의 독자적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가 잇는 울주여행, 지속 가능한 울주관광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및 완등인의 날 행사 운영,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대회 개최 등으로 울주군은 명실상부 산악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다. 공정관광 사업 및 콘텐츠의 다양화, 체류형 관광 특화상품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울주형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상 속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울주를 구현할 것이다.

언양읍성 복원 정비사업 및 역사문화공원 추진, 반구대암각화 등 지역 대표 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광자원화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입지를 굳힐 것이다.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 구영운동장 조성, 울주 해프미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 해양스포츠 대축전 개최, 군수기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다 함께 누리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강 울주를 만들 것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뉴딜 지역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일환으로, 비대면 (언택트)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과 에너지 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 및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지원 등을 추진하여 협력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경제활력 도시를 만들 것이다.

맞춤형 창업·취업 및 인재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연계와 직업 만족도 제고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산업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력 도시를 만들 것이다.

6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업으로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과 농촌 활력을 도모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농상생 복합센터를 건립하며, 지역농산물 반가공산업 육성사업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가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토록 할 것이다.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과 지역 대표 과수 육성을 위한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축산단지 ICT 시범단지 조성으로 환경오염 해소와 가축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 향상 등 첨단 축산을 구현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어촌·어항을 통합 정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며 어촌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어촌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치 파머를 꿈꾸는 2030 청년 농부의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년창업 및 퇴직 세대 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 도시민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녹색도시

시설물의 안전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언양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 울주군민체육관 등 4개소 노후 변압기를 친환경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법용 CCTV 설치와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빈집정비 지원사업, 취약지역의 생활기반시설·주택·마을환경 등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 등으로 주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악취민감시기에 악취특별순찰반을 운영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질을 향상시켜 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권 도시공원(구영들공원, 천상공원)을 조성하고, 두서활천·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KTX 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 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울주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재난·재해 및 범죄 발생에 대한 통합 대응 안전체계를 확보하고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하며 지진 발생 시 수초 이내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유도가 가능한 울주군 지진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지방하천을 정비(대북천·곡천천·중리천·효암천)하고 자연·사회재난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을 하며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감시 CCTV 등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방사능방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으로 재난·재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소통과
공감으로
스마트 군정
실현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구현과 소통과 참여로 열린 공감 행정 추진을 위해 열린 군수실과 읍·면별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울주군민 100인 원탁 토론회, 상상·소통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 울주군민권익위원회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군정을 운영할 것이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성과평가관리의 전산화로 스마트 군정을 실현하며,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양방향 문자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대기시간 단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선호 환경에 대응하여 납세자를 위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행정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구현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운영 과정의 투명성 향상 및 자치재정을 실현하고, 혁신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군민감사관제도 운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지원 위원회 운영 등으로 군민참여를 통한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울주TV」활성화와 SNS를 통한 군정홍보(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실시간 소통을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해 나갈 것이다.